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가족력에 관한 역학적 연구

(The epidemiologic study of family history
on sign &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조선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학전공 부수봉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가족력 및 증상의 기여요인을 규명하고자 비환자집단인 치과대학생 176명(남자 92명, 여자 84명)과 형제자매 272명(남자 109명, 여자 201명), 총 44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설문검사와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주관적, 객관적 증상의 유무에 따라 4군으로 분류한 후 SAS에 의한 chi-square test 로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주관적 객관적 증상이 있는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이 주관적 객관적 증상이 없는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에 비해 측두하악장애의 주관적 증상의 발현 빈도가 높았다 ($P<0.01$).
2. 측두하악장애의 기여요인에 대한 설문검사에서 주관적 객관적 증상이 있는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이 단단한 음식물 선호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주관적 객관적 증상이 없는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과의 사이에 이악물기 ($P<0.001$), 이갈이($P<0.01$), 편측 저작($P<0.01$), 정신적 스트레스($P<0.001$) 항목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3. 주관적 객관적 증상을 가진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이 하나 이상의 주관적 증상을 갖고 있는 빈도가 제일 높았으며, 주관적 객관적 증상이 없는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과의 사이와, 객관적 증상만 있는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과의 사이에서 유의차가 있었다($P<0.001$).

4. 주관적 객관적 증상을 가진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이 하나 이상의 객관적 증상을 갖는 빈도가 제일 높았으며, 주관적 객관적 증상이 없는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과의 사이와, 주관적 증상만 있는 치과대학생의 형제자매군과의 사이에서 유의차가 있었다($P < 0.001$).
5. 주관적 증상만 가진 치과대학생군과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증상을 가진 치과대학생군에서 가족력이 높게 나타났고($P < 0.001$),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가족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측두하악장애의 주관적 객관적 증상이 있는 치과대학생군이 주관적 객관적 증상이 없는 치과대학생군 비해 그 형제자매에서도 측두하악장애 증상의 발현될 빈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은 것으로 볼때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가족력이 있다고 사료된다.